

광주 동구는 치킨집·카페 공화국

통계청 광주 생활업종 분석...인구 대비 창업자 많아

1207명당 치킨집 1곳...카페 434곳 영업 전체 27%

한 집 건너 치킨집과 카페가 생겨나는 '치킨·카페 공화국' 광주에서 동구지역의 치킨집, 카페의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적은 대신, 별다른 창업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 퇴직자와 구직자들이 앞다퉀 치킨집과 카페를 오픈한 탓이다.

특히 치킨집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용봉동에 집중됐고, 카페는 광주시 동구와 서구 치평동 등 특정 지역에 몰린 업종밀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이 최근 새로 업데이트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우리 동네 생활업종'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도 치킨집과 카페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되는 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종밀집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치킨집의 경우, 광주에는 모두 855개(이하 2014년 말 기준)가 영업 중이며 이는 2006년(793개) 62곳이 늘어난 수치다.

구별로 살펴보면, 북구지역이 266개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247개, 서구 155개,

남구 103개, 동구 84개 순이었다.

문제는 특정지역에 같은 업종이 몰리는 밀집 현상이 심각했다. 동구의 경우 인구 1207.4명당 1개꼴로 치킨집이 있어 전국 평균(1620명)보다 밀집현상이 두드러졌고 북구(1686.1명당 1개), 광산구(1598명), 서구(1929.6명), 남구(2111명) 순으로 밀집도를 보였다.

또 대부분 지역의 치킨집 한 곳당 직장인 비율은 2.4~3.8명 수준이었고, 평균 종사자도 2.4명~2.8명에 머물렀다.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직장인 비율도 낮고, 종사자 수도 적은 영세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또 북구 용봉동(33개), 운암1동(20), 매곡동(15개)의 업종 밀집도가 높았다.

카페의 경우에도 동구와 서구 일부 지역의 밀집 현상이 심각했다.

광주지역에는 1630개의 카페가 영업 중이며 이는 지난 2006년(669개)에 비해 무려 961개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동구 동

■ 광주 치킨·카페 가맹점 수 (단위:개)

치킨:855 카페:1630



명동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를 중심으로 하루가 무섭게 새 카페가 생겨나는 등 광주 전 지역에서 카페 창업 붐이 일어난 때 문이다.

지역별로는 동구의 경우 434개의 카페가 영업 중이었고 이는 인구 233.7명당 한 개 꼴이었다. 전국 평균(917명)에 비해 인구 1인당 카페 수가 4배가량 많았다.

이어 서구 298개(인구 1003.6명당 1개), 남구 185개(인구 1175.3명당 1개), 북구 266개(1060.3명당 1개), 광산구 290개(인

구 1361명당 1개) 순이었다. 광주지역 카페의 경우에도 직장인구수는 2.6명~3.4명이었고 평균종사자 수도 2.5명~3.8명 수준이었다.

밀집도는 동구 전체지역과 서구 치평동(69개), 상무 1동(33개), 광천동(18개) 등지가 높았다.

한편 창업자를 위해 '우리 동네 생활업종' 서비스는 창업 가능 후보지 검색과 이 후보지의 정보, 공공데이터 등을 함께 찾아 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3.85 (-9.47)

↓ 금리 (국고채 3년) 1.69% (-0.03)

↑ 코스닥 621.64 (+2.23)

↑ 환율 (USD) 1145.80원 (+3.60)

“창업지원 받아 매출·고용 획기적 성과”

광주·전남중기청·스타트업 기업 만남의 장...성공사례 등 발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해 지역에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의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11일 오전 광주·전남중기청창업 나눔 공간에서 열린 지역 성공 스타트업기업과 지원기관 만남의 장에서 스타트업 기업(주)에이에이테크 박석철 대표는 “창업 지원기관의 도움으로 2년만에 정밀 금형부품과 자동화설비분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개발해 매출액이 6배 늘고 고용도 8배 증가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자리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주)에이에이테크 등 지역 성공 스타트업기업 등이 참석해 그동안 창업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창업지원 활성화와 스타트업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남대 창업보육센터(BI)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인 엑스페론골프(주)가 듀업밸런스 골프공 디스커버리 III를 출시해 제너럴 파트너 스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

국 광주우 캠퍼스에서 24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 2년만에 매출이 대폭 늘고 고용인원이 10배로 증가한 사례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운영하는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주)스튜디오버튼과 (주)엔버즈, 다공솔루션, 네이비 등 29개 스타트업을 지원해 지난해 26억원의 투자유치와 매출 49억원, 고용창출 79명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이 활발치 못했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몇몇 우수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등 기술창업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지원기관도 스타트업 기업 발굴에 힘쓰고 투자펀드 확대 등 보다 많은 창업기회를 마련하는 등 벤처창업인프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최근 청년창업펀드 투자금 유지를 계기로 대학과 연구소, 창업전문기관이 함께 투자전문가 양성고 유치에 나서 광주·전남지역이 벤처창업인프라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은행 고객패널 7명 ‘톡톡 자문단’ 떴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11일 본점 17층 회의실에서 광주은행 고객패널 ‘톡톡(Talk-Talk) 자문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톡톡 자문단으로 선발된 7명의 고객들은 주부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에 대한 의견제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금융서비스 도입에 대한 대고객 인식조사 활동, 영업점 서비스와 은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 제안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최영균 부장은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를 통해 소비자 중심 은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금호타이어 노조 “매각절차 중단하라”

산은 본점서 기자회견...요구서한 전달

금호타이어 우선 인수 협상자로 중국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노조원들이 주체권은 행인 산업은행을 향한 방문, 고용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매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국금속노

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광주·곡성·평택 상무집행위원 등 노조원 60여 명이 이날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은 금

호타이어 전 구성원의 고용보장 내용이 명확히 담보될 수 있는 매각이 아니라면 즉각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28일 산업은행에 방문해 금호타이어 전 구성원의 요구가 담긴 고용보장 촉구 성명서 및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요구사항들을 묵살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 및 주주협의회는 금호타이어 매각의 주된 목표와 기준 이익 실

현을 위한 가격적 요소에만 치우쳤고 구성원 고용보장 및 경영능력과 경영계획(설비투자) 검증에 대한 지회의 요구는 기밀유지 약정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의 산업은행 향한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송기서·이연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도 참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ju.co.kr

광산업진흥회 유럽 17억 수출 성과

독일·이탈리아 수출상담회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유럽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150만 달러(17억1300만원)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날 31일부터 8일까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2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7 유럽 LED 수출상담회'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한국광기술원과 OLED 사업추진 기관, 국내 LED 조명 8개사와 공동으로 국내 광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수출상담회에 이어 유럽 국가들과 OLED 국제공동기술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국제공동기술

개발 협력회'도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다양한 수출지원 활동도 펼쳤다.

독일 현지에선 국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고 선진 독일의 LED 조명 프로젝트를 설계기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유럽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차세대 OLED 조명 분야와 관련 해선 한국광기술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간 OLED 조명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성사 시키는 결실을 맺었다.

이탈리아에선 세계 3대 조명 전시회 중 하나인 밀라노 조명박람회(Euro-roluce) 참관과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LED 조명기업과 이탈리아 현지 25개 기업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자 개발 생산(ODM)과 관련된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